

ECONOMY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2500선 이탈

2025년 4월 1일 화요일

혁신창업리그 참가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혁신창업(일반) 리그'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리그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자를 모집하며, 각 센터별로 예선 리그를 통해 총 80팀을 선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종합예선을 통해 통합본선 진출 최종 40팀을 가려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합예선 및 통합본선 진출팀들을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참가자(팀)들이 통합본선·왕중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창업(일반) 리그'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예선 리그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발굴·포상에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하다.

'도전! K-스타트업 2025'를 통한 '왕중왕전' 수상팀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 투자자 연계를 통한 투자금 유치까지 가능하다.

'도전! K-스타트업 2025' 혁신창업 일반 리그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美 관세 철폐에 2480대 삼성전자 다시 '5만전자' 원·달러 금융위기 후 최고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가 3%대 급락했다. 코스피는 단숨에 2400선으로 밀려났고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6만원 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는 31일 미국 상호관세 공포에 미국 경기침체 우려, 공매도 재개 경계감까지 약세가 겹치자 전장보다 76.86포인트(3.0%) 하락한 2481.12로 마감해 지난해 4월 이후 두 달 만에 2480대로 밀려났다. 지수는 전장 대비 44.54포인트(1.74%) 내린 2513.44로 출발한 뒤 하락

세가 강해졌고 한때 2479.4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1조5753억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99억원, 667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954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순매도 규모는 약 2조5700억원으로 지난해 28일(3조2158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째 코스피를 순매도했다. 이는 2007년 6월~2008년 4월(11개월 연속) 이후 최장 기록이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4원 오른 1472.9원을 기록, 주간 거래 증가 기준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99% 내린 5만 7800원을 기록했다.

개장 직후 1.16% 내린 5만9500원으로 6만원선이 깨진 뒤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이날 최저가로 장을 마쳤다. 지난 20일 중가 6만200원으로 5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5만98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주가가 6만 원을 하회했다.

SK하이닉스는 4.32% 내린 19만7000원으로 19만원대에 턱걸이했다.

이들 반도체주와 함께 현대차(-3.8%), 기아(-3.15%), 현대모비스(-2.62%) 등 자동차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수출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3.01%) 내린 672.85로 장을 마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재개된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상호관세 우려 속에 전장보다 76.86p(3.00%) 내린 2,481.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창업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확대

혁신기술 실증유형 3개→6개로, 지원규모도 50개사로 늘려 자율형·공공인프라·장소제공형 참여기업 4월18일까지 모집

실증도시 광주시가 올해도 창업기업들이 혁신기술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을 시험무대로 내준다. 광주시는 '2025년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광주시 실증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를 50개사로 확대하고, 실증 유형도 기존 자율형, 시민체험형, 공공수요 솔루션형에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

형, 장소 제공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광주시의 실증 지원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실증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5개 참여기업들은 70억원의 매출 증가, 51억원의 투자 유치, 67명의 신규 채용 등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창업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자율형,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장소제공형 참여 기업 29곳을 모집하고, 이후 시민체험형과 공공수요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형 참여기업은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 및 장소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솔루션형은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지식산업센터(I-PLEX) 등 공공 기반시설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최대 2500만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장소제공형은 성능 검증이 시급이 필요하나 장소 협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 장소를 지원한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로사업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결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방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881등급 보호용 방호울타리(설치위무회)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방호울타리 전용(기준안정), 보드록 확보 용이

빛물 저류 침투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간지 롤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본 사 1(광주) 전남 광평군 학교면 학교교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신구 평동신대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 오픈 기념 이벤트

매월 56명 추첨 푸짐한 경품·캐시백 혜택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통번역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이벤트 기간 내 외국인 전용 상품에 1개 이상 최초 가입하거나 현지 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1회 이상 최초 이용한 고객 중 매월 56명을 추첨해 아이폰16 128GB(1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5명), 올리브영 상품권 5만원(10명),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40명)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TOGETHER'의 국민통장 가입일로부터 1개월 평균 잔액 10만원 이상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4000명에게 5000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TOGETHER'체크카드를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GS25(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상품 가입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Wa)뱅크(APP), 모바일웹페이지, 외국인전용 고객센터(1670-828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그린알로에, 간건강 도움 건강기능식품 출시

'그린파워리버카플러스'...항산화물질 다수 함유

현대차는 다음 달 1일부터 글로벌 인제 채용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재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과 해외대 학·석사 인턴십, 해외 이공계 박사 채용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재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은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내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4개 부문이다. 해외대 학·석사 인턴십은 해외 대학·대학원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내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외 이공계 박사 채용은 내년 8월 이내 입사가 가능하고 해외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그린알로에(회장 정광숙)가 현대인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유래 소재를 복합적으로 함유한 '그린파워리버카플러스'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31일 그린알로에에 따르면 그린파워리버카플러스에는 밀크씨슬 추출물과 건조효모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11종을 함유한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중국산 원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자연유래부형제로 제품화하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했다. 밀크씨슬과 함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고버섯균사체,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레몬발, 복분자, 새싹보리, 민들

레 등 다양한 부원료를 함유한 것도 특징이다. 실제 음주, 바이러스, 약물 오남용, 지방간, 비만, 서구적인 식습관 등의 원인으로 손상된 간건강에 도움을 주기위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운지버섯자실체, 울금, 글루타치온, 케르세틴, 베타글루칸, 민들레, 굴, 아티초크, 샬롯, 오미자, 아그리모나농축액, 홍경천, 알로에 베라겔 등 다양한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정광숙 그린알로에 회장은 "밀크씨슬은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간 질환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천연소재"라며 "간의 주요 기능인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돕고 간의 에너지대사에 관여하는 자연유래성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주원료 함유 있다"고 설명했다.